

## 취임사

# 「제2건국」을 위한 준비 작업



진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뜻밖에도 제가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명받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고 보니 영광이라기 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통신업계와 관련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신명을 바쳐 이바지할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런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정보통신가족 모두의 따뜻하고 열성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경영인으로서 정보통신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퇴임하신 전임 배순훈장관님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저는 정보통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룩해 온 놀라운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기본통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시켰으며, 이제는 21세기 우리 민족의 진운을 가름할 정보사회 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통신사업 구조개편, 정보통신산업 육성계획 등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정책과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정보통신제품이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 효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

니다. 국민들은 우체국을 가장 친근한 행정기관으로, 우체국 직원을 가장 친절하고 성실한 공직자로 꼽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구습과 정체와 퇴영의 낡은 모습들을 혁파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구조와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결연한 각오와 다짐으로 국력을 결집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수행에 있어 우리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러 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한대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완성은 경제·사회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제·사회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금융전산망이나 부동산전산망 등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정경유착, 탈세등의 구시대적 비리는 더 이상 검은 뿌리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사업은 각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 외에도,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경제를 완성 시키는 중요한 수단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임의 자리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처럼 중차대한 만큼,

###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인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의 기반구축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이나 사업환경과 이용환경 정비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정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화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국민정서, 생활습관까지를 사려깊게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이행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른 부처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국가사회 정보화를 리드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통신산업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산업으로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원칙아래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의세계적 환경 아래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스스로가 사고와 의식을 전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내시장 방어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국제무대 진출이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보호와 규제 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공정경쟁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자 역할에 치중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우편과 금융사업이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경영의 혁신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 온 우편과 금융사업도 앞으로 국제적인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어 지금부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제2 건국운동의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업위주에서 지식·정보·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우리 정보통신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창의적인 전인교육과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강력한 정보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직원간 인화단결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직원간 화합의 정신은 정보통신부의 오랜 전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상호간에 깊은 이해를 통하여 이 직장을 더욱 보람된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직원들, 특히 일선 우체국에서 애쓰는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체신노동조합과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조아래 공존공영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분의 정책 수행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책을 널리 알려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뒷받침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새정부 들어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위기도 중요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이제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사실상 시작입니다. 다시는 이처럼 국민들이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가 일체감과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보통신가족들이 그 견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분들 모두가 우리 손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개혁작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 **전국의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실천력이 있습니다. 조국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21세기로, 세계로 나아갑시다. 그 행군대열의 선두에서 제가 정보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겠습니다.

이밖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을 것이므로, 이만 취임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정보통신부장관 **남궁 석**